

여성 목회자의 여성-되기 경험에 관한 비판적 질적연구

김혜미*·김영순**

초 록

본 연구는 비판적 질적연구로 가부장적인 교회 구조 및 문화에 순응하지 않고 변화를 시도하는 여성 목회자의 '여성-되기' 경험을 탐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비판적 질적연구는 비판이론에 기반한 질적연구로 불평등한 사회 구조나 관계를 드러내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주제 및 12개의 의미가 도출되었다. 상위 범주인 4개의 주제는 홀 패인 공간에서의 어려움, 물질인 여성들을 마주함, 함께 여성-되기, 매끄러운 공간의 생성이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목사안수 이후에도 남성 중심의 교회에서 지도력이 제한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여성-되기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여성-되기의 과정에서 반대자로 나타나는 여성 동료들과 여성-되기를 함께 실천하는 여성 동료들을 모두 마주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의 여성-되기 과정에서 남성들의 협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여성 목회자, 들뢰즈와 가타리, 여성-되기, 비판적 질적연구

* 제1저자: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수료(onyou21@gmail.com)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kimysoon@inha.ac.kr)

I. 서론

한국 사회는 여성에게 평등한 공간도 안전한 공간도 아니다. 2021년 양성 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여성 65.4%, 남성 41.4%가 한국 사회를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 여성 폭력에 대해서는 각각 여성 92.1%, 남성 79.3%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이 심각하다 혹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응답해 남녀를 불문하고 그 심각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여성가족부, 2022). 실제로 최근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폭력 사건이 눈에 띄게 늘면서 여성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장미혜, 2021; 정도희, 2023). 여성주의 이론에서 여성혐오는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나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생각들을 의미하며(이나영, 2016: 158)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폭력은 이러한 여성혐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혐오는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 왔다(김진호 외, 2018; 잭, 2021).

교회 역시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여성혐오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다. 특히 여성이 목회자로 시무하는 교회 내에도 여성혐오가 존재한다(권최연정, 2017; 김나미, 2016).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남성 중심 집단으로(강희수, 2013; 김모란, 2013; 김은혜, 2009; 김진호 외, 2018; 조승미 외, 2014) 여성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의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을 요구받을 때가 많다(박경순, 2007; 박보경, 2016; 박정신, 2011). 여성을 남성의 보조적 존재로 인식하는 시각은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교회는 지금껏 여-남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펼쳐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국 기독교는 여-남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 변화의 움직임에 둔감할 뿐 아니라 젠더 정의가 퇴행하는 공간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강호숙, 2021; 김혜령, 2022). 백은미(2017)는 교회 내 여성혐오가 표면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이 아닌 은밀하게 작동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독교 교육과정에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여성주의 시각에서 볼 때 가부장적인 교회는 퇴행적 공간이며 여성 목회자에게는 불평등한 공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성 목회자 역시 남성 목회자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이지만 남성 중심의 교회 문화가 변화하지 않는 한 이들에게 허용되는 지도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강남순, 1998; 이정숙, 2003; 조승미 외, 2014). 여성 목회자의 양적인 숫자가 증가할수록 이들의 지도력은

남성 중심의 교회에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백은미, 2017: 46) 이는 기존 남성 중심의 지배 구도를 해체하고 새롭게 배치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될수록 그러하다. 미국의 교회에서도 가부장제는 여성 목회자의 차별에 있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데(Ceasar, 2020: 5), 한국의 기독교는 그러한 서구적 전통과 특유의 유교문화가 결합되면서 가부장적 구조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계재광, 2010; 김은혜, 2009).

여성 목회자의 여성-되기는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교회 공간으로부터의 탈주를 의미한다. 여성-되기는 들뢰즈와 가타리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Deleuze & Guattari, 1987) 남성과 여성, 지배와 피지배의 이항 대립을 부정하며 여성 억압의 구도를 해체하기에 유용하다(조애리·김진옥, 2016: 278). 본 연구는 여성-되기 개념을 기초로 해서 비판적 질적연구를 통해 가부장적 교회의 구조 및 문화에 순응하지 않고 변화를 시도하는 여성 목회자의 여성-되기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래 질적연구는 그 자체로 사회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에 관심을 둔다(김영순 외, 2018: 72). 비판적 질적연구는 비판이론에 기초하여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를 드러내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질적인 연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김영천, 2013: 514).

본 연구에서 비판의 쟁점은 남성 중심의 교회 구조 및 문화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 목회자를 둘러싼 다양한 생활세계 중에서도 교회 영토에서의 여성-되기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여성 목회자의 여성-되기 경험의 양상 및 의미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여성 목회자의 위치

일차적으로 여성 목회자는 여성인 목회자를 가리킨다. 이때의 여성 목회는 여성이 수행하는 일련의 목회 활동이 된다. 그러나 강희수(2013)는 이러한 일차적 정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 해방을 위한 실천적 활동을 수반하는 목회’로써 여성 목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바라보는 여성 목회자는 강희수(2013)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이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배치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며 적극적으로 여성 해방을 실천하는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여성 목회자의 여성-되기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성 목회자의 범주에는 목사 안수를 받은 여성 목사와 안수를 받지 않은 여성 전도사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여성의 목사직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 소속 여성 전도사에게는 ‘안수받은 자’라는 언어 자체가 차별적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숙자, 1994: 133). 한국의 기독교에는 다양한 교단이 존재하며 여성의 목사직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이 반대의 경우보다 더 많다(이정숙, 2003; 조승미 외, 2014). 가부장적 사고방식은 교회의 대표성을 지닌 존재는 남성이라는 이미지를 생산하였으며(강남순, 1998) 이것은 오랫동안 여성의 목사직 안수를 금지하는 행위로 발현되었다(최종호, 2010: 190). 박경순(2007)은 여성의 목사직 안수 허용이 그동안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지도력을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성안수를 허용하게 된 교단이라 해도 여성에게 제한적인 지도력만을 허용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박보경, 2013).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남성 중심의 교회에서 여성 목회자는 소수자로 내몰리게 될 위험이 있다. 여기에서의 소수는 숫자와 관련이 없다. 들뢰즈와 가타리에 의하면 다수와 소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숫자가 아닌 권력이다. 소수란 지배 권력으로부터의 거리로 가늠되는 질적 개념으로(한정현, 2016: 266) 다수는 표준을 의미하며 이 다수를 중심으로 관계의 우위가 결정된다(김재인, 2015: 230). 그러므로 남성 중심 교회에서 여성 목회자는 남성에 의해 사회적 위치가 결정되는 소수자로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여성 목회자가 소수자로 살아가게 될 때 이들은 차별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목사 안수 배제(조혜정·양성은, 2014; 최종호, 2010)나 소득 차별(김윤희·송현, 2020; 박향숙, 2020; 이정숙, 2003)과 같은 명백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때로 미묘한 차별¹⁾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서영준, 2017: 377)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 놓인 여성 목회자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집단임에도 높은 소명 의식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억압하는 경향을 보인다(김혜미·김영순, 2022: 381).

1) 미묘한 차별은 유색인종 차별에 관한 사회적 담론에서 처음 사용되며 알려진 용어다(강혜원·이정윤, 2020: 64). 미국 출생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영어를 잘한다고 거듭 칭찬하는 것을 미묘한 차별의 예로 들 수 있다(나리타 마미·장은영, 2020: 78).

2. 여성 목회자의 여성-되기

‘되기’는 들뢰즈와 가타리 존재론의 핵심으로 기존의 지배 구도에 균열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실천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김은주, 2014a: 101).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되기라는 용어 대신 생성을 사용하는 학자들도 있다(김재인, 2015: 220).

여성들에게는 다양한 되기가 필요하며 여성들은 여성-되기를 통해 전통적인 여성의 이미지 재현을 거부하고 탈피하고자 하는 주체가 된다(최현경·강진숙, 2020: 142). 오주리(2021)는 여성 작가의 여성-되기를 젠더 규범에 귀속된 문학적 습관을 거부하고 여성의 자기다움을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여성 목회자의 여성-되기는 홈 패인 공간²⁾인 기존의 남성 중심 교회 구조에 순응하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여성-되기의 실천을 통해 동일성의 범주에 예속되는 것이 아닌 차이를 생성하는 주체로서 새롭게 자신을 만들어 가게 된다(이정민, 2024: 329).

한편으로 여성-되기는 들뢰즈가 제시한 되기의 긴 과정에 편입된 것으로 오히려 여성 문제가 희석되거나 은폐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연효숙, 2006: 96). 특히 브라이도티는 들뢰즈의 여성-되기에서 여성은 성차를 가진 현실 속의 여성을 담지 못하는 은유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브라이도티, 2004).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욕망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여성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여성-되기는 여전히 여성주의적인 시도와 연결된다(김은주, 2019: 123).

소설 〈제인 에어〉의 주인공 제인의 여성-되기를 분석한 김정순(2009)에 의하면, 가부장적 관습의 홈 패인 공간에 정주하려는 욕망과 탈주하려는 욕망 사이에서 분열을 겪는 제인은 다른 여성들과의 연대를 통해 그 안에서 나름의 매끄러운 방식으로 거주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처럼 여성-되기의 사유에서 여성 간 연대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이 포착됨에도(김은주, 2014a: 96) 들뢰즈의 여성-되기에서 여성 간 연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발견되지 않는다(조애리·김진옥, 2016: 275).

하지만 홈 패인 공간에서의 탈주를 시도하는 현실 속 여성은 주인공 제인의 사례에서처럼 홀로이면서도 타자와 함께하는 행위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2) 들뢰즈와 가타리는 생성의 공간을 각각 홈 패인 공간과 매끄러운 공간으로 개념화하였다. 홈 패인 공간이 사람 및 사물의 흐름, 방향 또는 속도가 통제되는 공간이라면 유목민의 공간인 매끄러운 공간에서는 원하는 방향으로의 모든 움직임이 가능하다(엄수정, 2019: 186).

여성 목회자의 여성-되기 과정에서 동료들과의 연대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떤 것도 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성찰을 바탕으로, 반려종 선언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사유를 전개한 도나 해러웨이에 따르면 되기란 곧 함께-되기(becoming-with)³⁾이기 때문이다(해러웨이, 2019: 28).

Ⅲ. 연구방법

질적연구는 가부장제 아래 억압되었던 여성의 목소리와 경험을 탐구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으로(김영천, 2016: 40)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비판적 질적연구를 연구방법론으로 한다. 질적연구는 현실의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특징이 있으며(김영순, 2018: 17) 연구자는 여성 목회자로서 다른 여성 목회자들의 여성-되기 경험에 대한 호기심으로 본 연구를 설계하였다. 비판적 질적연구는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질적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회의 구조를 지배와 피지배, 억압과 피억압의 대립적 관계로 인식하므로 약자와 소수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데 유용하다(김영천, 2013: 514-516). 비판이론가들은 집단 내 소수자에 주목하며 권력이나 지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을 억압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인종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뿐 아니라 종교, 젠더 등도 연구의 주제가 된다(김영순 외, 2018: 31).

비판적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관점이 감춰지지 않고 드러난다. 비판적 질적연구는 불평등한 관계를 의식화하여 폭로하고자 하므로(박해선, 2020: 35) 연구자가 뚜렷한 문제의식을 표명하게 된다. 비판적 질적연구에서 연구자는 외부자의 입장에서 단순히 자료를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자신의 세계관이나 사회에 대한 관점 등이 연구에 깊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김영천, 2013: 516).

본 연구에서 비판의 쟁점은 남성 중심 교회의 구조 및 문화이며 여성 목회자의 여성-되기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이러한 구조 및 문화가 지닌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3) 해러웨이의 함께-되기(becoming-with)는 함께-만들기(making-with), 공동제작(sympoiesis), 반려자들과 함께-세계짓기(worlding-with)로도 표현된다(해러웨이, 2019: 58). 최유미(2021)는 '함께 생산하다'라는 의미의 공-산(共-産)으로 해러웨이의 사유를 조명하였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여성 목회자 3명이다.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의 주제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로 연구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가리켜 목적표집방법이라고 지칭한다(김영천, 2016: 137). 연구자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기독교 언론사에서 취재 기자로 일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 알고 지냈던 취재원 중 남성 중심의 교회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표명하였던 3인을 연구참여자로 목적표집하였다.

박경순(2007)은 여성의 목사 안수가 갖는 의미가 지도력의 부여에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이 목사안수를 통해 공식적인 지도력을 부여받게 된 이후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목사안수를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여성 목회자로 연구참여자를 목적표집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연구참여자	출생 연도	목사안수 연도	소속 교단	목회 유형
A	1967년	2013년	장로교	교육 목회
B	1966년	2002년	감리교	기관 목회
C	1954년	1997년	장로교	기관 목회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각각의 연구참여자들과 2회에 걸쳐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사무실, 카페 등에서 이루어졌다. 심층 면담의 평균 시간은 90분으로, 사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반구조화 질문지를 전송하여 답변할 내용을 미리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면담 후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한글 프로그램을 활용해 전사록을 작성하였다. 전사된 내용은 한글 문서로 126쪽, 단어 수는 47,713개이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전사록을 출력하여 반복적으로 읽은 뒤, 질적 자료분석을 위한 웹(Web) 기반 프로그램 타게트(taguette)를 활용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개방코딩을 통해 총 51개의 의미를 도출하였으며, 연구의 주제

와 거리가 먼 개념들을 제외하고 유사한 개념들은 연결하며 묶는 방식으로 12개의 주요 의미를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홈 패인 공간에서의 어려움, 물적인 여성들을 마주함, 함께 여성-되기, 매끄러운 공간의 생성 등 4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 상위 범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독자의 직관적인 이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렌즈인 들뢰즈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참여동의서 및 구술을 통해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참여자에 한하여만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답변을 거부할 권리 및 언제든지 연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사전 고지하였으며 2차례의 면담을 마친 후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연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단의 정례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IV. 연구결과

되기는 질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생산해 내고(김은주, 2014b: 19) 여성-되기는 남성/여성이라는 이항 대립의 해체를 통해 기존의 구조를 작동하게 하는 권력을 해체하고자 한다(조애리·김진옥, 2016: 267). 본 연구는 비판적 질적연구로서 남성 중심 교회 구조 및 문화를 비판의 쟁점으로 하며 여성 목회자의 생활세계 중에서도 교회 영토에서의 여성-되기 경험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인 범주화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여성 목회자의 여성-되기 경험

주 제	의 미
홈 패인 공간에서의 어려움	미묘한 차별
	편견에 부딪힘
	기회의 제한
물적인 여성들을 마주함	남성적 리더십의 모방
	여성들의 반대에 부딪힘
	스스로를 돌아봄
함께 여성-되기	배움의 동료들
	정서적 지지
	도움을 주고받기
매끄러운 공간의 생성	주체적인 목소리 내기
	실험적인 시도
	법과 정책을 바꾸는 노력

1. 홈 패인 공간에서의 어려움

홈 패인 공간은 경계 지어진 통제와 질서의 공간으로, 매끄러운 공간과는 반대의 특징을 보인다(박건령, 2022: 1158). 남성 중심의 교회는 매끄러운 공간이 아닌 홈 패인 공간에 해당하며 여성 목회자인 연구참여자들은 미묘한 차별, 편견에 부딪힘, 기회의 제한으로 홈 패인 공간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직접 겪은 미묘한 차별의 경험만을 소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여성 목회자에 대한 그러한 차별이 만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P교단 여성 지도력 증진을 위한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해 온 연구참여자 B는 최근의 양성평등 모니터링 결과가 10여 년 전의 교회여성 의식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문제의식은 높게 나타났고 중요한 역할은 항상 남성이 맡게 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다. 연구참여자 C는 과거 부목사로 시무하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불편함을 느꼈다. 당시 연구참여자 C가 소속되었던 교회는 새로운 담임목사가 오면서 부교역자들이 교체되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었다. 교회를 떠나야만 할 것 같은 암묵적 분위기에서 C는 때마침 다른 교회의 부임 요청을 받아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 자발적으로 교회를 떠나긴 했지만, 여성을 예외로 여기는 인식에는 불편을 느꼈다.

분위기가 담임이 바뀌니까 나가주는 게 예의고..., 물론 여성은 또 예외예요. 오히려 여자는 나가지 말라고 그래. 여성은 담임한테 적이 안 되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있다가는 담임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렇게 느끼는 거. 근데 여자는 위험한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조력해지고 받쳐준다고 생각하지. 어차피 사람들이 담임으로 생각 안 하니까 저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똑똑하고 좋아도 그냥 개는 보조자지 이런 마인드가 다 있죠. 그러니까 담임으로 안 부르는 거지. (연구참여자 C, 2차 면담)

밤새워 가면서 잠도 못 자고 죽어라고 했죠. 나중에 거기에 투입됐던 남자들은 국장이 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따라서 다 됐어요. 근데 저는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너무 일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어요. (연구참여자 A, 1차 면담)

대학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며 교회의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는 연구참여자 A는 대규모 기독교 행사의 준비위원으로 여러 차례 참여한 경험이 있다. 밤샘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결과, 같이 준비했던 남성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자신에게는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이 돌아왔다. 미묘한 차별은 이처럼 겉으로는 여성을 위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여성의 행동이나 생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강혜원·이정윤, 2020: 70)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다. 이는 여전도사에 대한 자연스럽고 의례적인 차별성을 지적한 서영준(2017)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여성 목회자에 대한 편견에 부딪히는 일도 많았다. 연구참여자 A는 목사안수를 받기 전, 전도사로 있으면 파트 사역이라도 할 수 있지만 여성이 목사가 되면 부담스러워한다든지, 결혼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 연구참여자 B는 목사안수를 받은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 목사님은 처음 만나요”라는 얘기를 듣는다. 연구참여자 C는 설교자로 초청을 받아 가게 된 교회에서 “여자 목사는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불렀다”는 부정적 반응에 마주했던 일도 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을 직접 들은 것은 그 자리에 동행한 C의 남편이었다.

그때 부목사가 6명 있었어요. 들어온 순서대로 1번부터 6번까지 서열이 있었어요. 여자는 5번 나 하나고 나머지는 다 남자예요. 담임목사님이 2주간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였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이미 설교를 다 했고 5번하고 6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직 설교 안 한 사람이 누구지? 그러더니 6번한테 딱 아직 안 했지? 한 번 해야겠는데” 이러셨어. 5번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한 거지. 이걸 지금 말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갑자기 어떤 사건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 이 원장님이 좀 도와달라고 SOS를 친 건데…. 윗선에서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거는 남자 목사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잘렸어요. 저는 이미 교수고 목사이고 사회적인 경험이 많은데도. 연차와도 상관없이, 남자여야 된다는 거죠. (연구참여자 A, 1차 면담)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가 제한되는 일도 많았다. 연구참여자 C는 오래전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렸다. 당시 C는 담임목사를 대신해 설교할 순서를 정하는 교역자 회의에 참여하였음에도, 혼자만 제외될 뻔했다. 연구참여자 A는 올해 초 교회가 운영하는 기관의 실무자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요청을 받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돌연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남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이유로 윗선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연구참여자들은 여성을 담임목사로 초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것은 여성 목회자들에게 분명하게 인식되는 유리천장이 있음을 보여준다. 유리천장을 마주한 개인은 불공정한 결정에 좌절을 경험한다(송현진·조윤직, 2014: 46).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좌절의 경험들은 여성-되기를 결심하는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물질 여성들을 마주함

기존의 가부장적 구조 안에 머물러 있는 여성은 물질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조애리·김진옥, 2016: 272). 반면 분자적 여성은 여성의 개념을 새롭게 생산하고자 하는 주체로, 들뢰즈와 가타리에 의하면 여성-되기는 물질 여성의 정체성을 해체하여 분자적 여성이 되는 것이다(김은주, 2014a: 104).

연구참여자들은 남성 중심적인 기존의 교회 문화에 순응하거나 때로는 적극적으로 모방하는 물질 여성들을 마주하였다. 그들이 마주한 물질 여성은 동료 여성 목회자이기도 했고 여성 교인이거나 때로는 자기 자신이기도 했다. 물질 여성들을 마주한 이들의 경험은 남성적 리더십의 모방, 여성들의 반대에 부딪힘, 스스로를 돌아봄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B는 남성적 리더십을 원하는 교회의 요구에 자신을 맞춰간 후배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 후배는 남성 목회자처럼 목소리도 결결하게 바꾸고 이전과는 다른 스타일을 목회에 적용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B와 C는 소속 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성 목회자들의 연합 모임이 변질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회장이나 총무를 하고 싶어 하는, 음...(잠시 멈춤), 이해는 해요. 여교역자들이 워낙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는구나. 남자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명예욕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받은 상처나 이런 것들의 반대 급부로, 여교역자들 사이에서 남성들의 영역 같은 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연구참여자 B, 2차 면담)

교회마다 전화해서 동의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딱 여성 목사 한 명이 나 이런 거 싫어. 하지 마세요. (중략) 저는 그 뒤에는 그 사람의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있는 어떤 그 무리 속에서 가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강해져야만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한. '나는 남성이야' 그런 어떤 힘을 지키고자 하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존의 구조에 자리 잡아야 하니까. 그것이 바른 것,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을 남성화시키고.... (연구참여자 A, 1차 면담)

순종적 신체로 길들여진 물적 여성은 위계적인 지배 질서를 재생산한다(김정순, 2009: 87). 연구참여자들은 여성-되기의 과정에서 같은 여성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 상대적인 불편감을 더 크게 느꼈다. 연구참여자 C는 교단의 여성위원회가 만들어질 당시를 회상하며 양성평등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표현하는 한 여성 지도자 때문에 양성평등위원회라는 처음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C는 자신을 가부장제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생각하였고 그로 인해 여성들로부터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받거나 은근한 질타를 받아온 것으로 인식하였다. 같은 교단 소속의 연구참여자 A 역시 노회의 여성위원회 조직을 위해 여성들의 동의를 구하던 중 뜻밖의 반대에 부딪히며 난감하였던 경험을 나누었다.

교회 내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 온 연구참여자 B는 유독 이런 경험이 많았다. 교회 여성들로부터 “목회자를 유혹하는 여성들이 더 문제”라든지, “짧은 여성들도 짧은 치마를 입고 오면 안 된다”든지, “우리 목사님이 성폭행했을 리 없다”라는 식의 반응에 마주할 때마다 B는 답답함을 느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도전해 볼걸 하는 후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어떤 유리천장을 깨고. 저도 가부장적인 문화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하는 게 뭐 불경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스스로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중략) 굉장히 남성들과 일을 많이 하고 사실은 남성 중심 체계를 강화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왜냐 하면 그 속에서 자랐고…. (연구참여자 A, 1차 면담)

연구참여자 A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자신이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남성 중심의 문화를 강화했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다. 여성-되기는 남성을 보편적 인간의 기준으로 삼아 여성을 재현하는 것을 문제시하므로(김은주, 2019: 113)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은 여성-되기의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연구참여자 A의 내러티브는 여성-되기에서 자신 안의 물적인 여성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 준다.

3. 함께 여성-되기

소설 주인공인 제인 에어의 여성-되기에서 다른 여성들과의 연대는 중요한 동력으로 나타난다(김정순, 2009: 87). 본 연구의 참여자인 여성 목회자들에게 여성은 반대자로 경험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여성-되기를 함께 하는

동료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는 함께 배우는 여성 동료들이 있었다. 서로 다른 주체로서 이들은 함께 배움을 통해 상호작용하였고 각각의 여성-되기를 실현하였다. H여대에서 여성학을 공부할 때나 신학교 재학 시절 여성신학을 공부할 때도 연구참여자 C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때마다 인식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배움의 동료들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A는 여성신학 연구 모임에 소속되어 활동해 왔다. 연구로만 그치지 않고 성명을 발표하거나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모임 안에서 A는 동료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B에게는 교단의 법을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이 있었다. 그러나 개혁적인 실천을 지향하며 함께 교단법을 공부하였던 이들의 여성-되기는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함께 하는 모두가 같은 여성-되기를 경험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때 당시에 G대 육교 건너 지하에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그냥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교단법 중에 여성들에게 불합리한 지점이 뭔지 자기가 교회 현장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지점이 뭔지를 발제하고 토론하고 그럼 대안을 뭘 만들 거냐, 이것을 토론하던 그룹들이 있어요. (중략) 지금은 이제 목회자들로 거의 만나죠. 각자 그렇게 자기 영역에서. 지금은 이제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졌어도, 그때 같이 했다는 걸로 동지 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연구참여자 B, 1차 면담)

담임목사로 청빙된 어느 여성 목회자가 노회 면접에 갔을 때의 일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아, 여자가 담임 목사였네요?”. 엄청 놀랐던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남편이 하라고 하던가요?” 세 번째 질문은 “애는 있나요?”. 면접이 끝나고 나서는 “담임목사님이 참 예쁘네요”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면접자가 남자였다면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전부 다 막 이런 뭐, 하면서 욱했죠. 그래도 그렇게 나누면서 큰 힘이 돼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여성 목회자들은 사실 어느 누구냐를 불문하고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연구참여자 A, 1차 면담)

여성 목회자들은 미묘한 차별이나 배제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며 위축되기 쉽다(김혜미·김영순, 2022: 381). 본 연구참여자들의 여성-되기 과정에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동료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이러한 지지로 인해 포기하지 않고 기존의 질서에 꾸준히 대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A는 얼마 전 어느 여성 목회자로부터 노회 면접 경험담을 듣고 황당함을 느꼈다. “여자가 담임목사였네요?”라며 놀라거나 “남편에게 허락은 받았는지”를 묻는 면접관들의 비상식적 반응 때문이었다. 그나마 당시 함께 모인 여성들과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며 정서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 수년간

여성 목회자 연합기관의 실무자로 일한 연구참여자 C는 지금까지 수많은 동료 여성을 만났다. C는 그러한 만남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격려, 위로를 경험하였고 때로는 교회의 불합리한 풍토에 함께 분노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B가 소속된 기관의 여성들은 ‘OOO 센 언니’라는 사람들의 선입견에 부딪힐 때가 많지만, 얼마 전 바로 그 ‘센 언니’라는 이미지를 통해 든든한 지지가 되어주는 경험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때로는 도움을 주었고 때로는 도움을 받았다. 연구참여자 B가 일하는 기관은 선배 여성들의 노고로 설립된 곳이다. B는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줄게. 마음껏 해봐”라는 선배의 말을 기억하고 있으며 교회로부터 3년 동안 임신 및 출산을 금하는 부당한 요구를 받고 도움을 요청한 여성 목회자나 교회 내 성폭력 사건에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는 여성 평신도의 요청을 받았을 때 적절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업무의 특성상 동일 교단 소속의 여성 목회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자연스레 그들의 멘토 역할을 감당하였다.

창립 50주년이라 축하를 여러 곳에 부탁했나 봐요. 영상이 많이 뒀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제 텔런트인 여성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거기 갑니다. 가고 있습니다. 좀 이따 뵈요” 막 이런 식으로 영상이 끝나더라고요. 이분이 와서 직접 축하하고 나서 갑자기 자기네 교회에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략) “여기 많은 여성 목사님이 계시니 같이 한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서명이라도 해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요. (연구참여자 B, 2차 면담)

이번에 나도 감동했는데 OO 목사님이라는 분이 내가 여교역자의 과제에 대해 강의했던 내용을 휴대폰에 가지고 다니시더라고. 내가 쓴 거를 나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갖고 다닌다고. 거기다 밑줄 쳐서 보고 있대 지금도. 계속 본대. 수시로 본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연구참여자 C, 2차 면담)

여성-되기는 백인, 남성 등으로 표상되는 표준적 정체성에 저항하는 것으로 들뢰즈는 물적인 여성과 물적인 남성 모두에게 여성-되기가 필요하다고 본다(김은주, 2019: 121).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과 함께하며 여성-되기를 실현하는 주체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드러났다. 남성 동료들의 여성-되기 사례는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4. 매끄러운 공간의 생성

여성-되기의 핵심으로 제시되는 탈주는 도피가 아니다. 여성-되기를 통한 흠 패인 공간에서의 탈주는 가부장제와는 다른 매끄러운 공간을 생성하는 것이다(조애리·김진옥, 2016: 279). 매끄러운 공간은 획일화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공간이므로, 매끄러운 공간에서 여성 목회자는 자유롭게 변화하며 이동하는 유목적 주체가 된다. 매끄러운 공간 생성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주체적인 목소리 내기, 실험적인 시도, 법과 정책을 바꾸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험은 매끄러운 공간 생성을 위한 노력의 움직임이기도 하며 실제로 매끄러운 공간을 생성해 낸 것이기도 하다.

졸업할 때쯤에는 당연히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중략) 그, 반발심도 있었어요. 여자는 안수를 안 준다잖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안수가 딱 통과되면 당연히 우리가 여성이 해야지. 우리가 목사가 되어야 해. 이러면서 우리 막 시험도 같이 대전에서 합숙해서 공부하고 이랬어요. 여성들끼리. (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나도 설교를 안 했는데 왜 나는 안 시켜, 나도 해야지.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아까(그 자리에서) 얘기 안 하길 잘했고 자기가 대신 말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래. 그래서 내가 “아니야, 이건 내 문제인데 왜 네가 대신 말해줘. 내 문제니까 내가 말해야지. 내 문제를 왜 네가 말해주니?” 그래서 “내가 말할 거야.” 이러면서 다시 올라갔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연구참여자 C는 1997년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C는 당시 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첫 번째 여성 목회자였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C가 소속된 교단에서 여성은 목사안수를 받을 수 없었고 C 역시 목사안수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졸업할 즈음 여성의 목사안수 제도가 어렵사리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며 생각이 바뀌었다. ‘우리 여성들도 할 수 있지’라는 주체적인 인식이 형성되었고 이후 설교의 기회에서 배제되었을 때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반발하기에 이르렀다. 연구참여자 B는 교단의 여성신문을 만들어 배포하는 데 앞장섰다. B는 초기 편집국장을 맡아서 교단의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신문을 통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매끄러운 공간의 생성을 위해 실험적인 시도를 하거나 법과 정책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연구참여자 A와 C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이 교회의 가부장적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안적 용어

를 찾으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A가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연대 모임에서는 권위적인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두가 평등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B가 일하는 기관에서는 성경의 일부 구절을 재구성하여 가부장적 문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고 젊은 교회 여성들에게서 높은 호응을 받았다.

여기는 시니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O이라고 부르는 거죠. 나이나 지역이나 처지나 이거와 상관없이 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니, 선배, 목사님, 교수님, 이렇게 서로 호칭에서 나오는 하이라키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걸 인식하게 하는 관계들을 갖지 않기 위해서... (연구참여자 A, 2차 면담)

한 번에 다는 통과가 안 되고 성폭력특별법을 내서 까인 게 한 대여섯 번 되는. 5번이면 저희는 10년이거든요. 2년에 한 번씩 법을 바꾸니까. 그래도 계속 내고 여성들의 힘을 모으고 남성들의 힘까지 모으고... (중략) 성폭력특별법은 처음에 “차라리 나라를 하나 따로 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성폭력 대책위원회 법도 처음에는 제목만 통과시켰어요. (연구참여자 B, 2차 면담)

연구참여자 B는 교단의 법과 정책 개선에 앞장서며 매끄러운 공간을 생성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회 내 성폭력 문제에 대응한 것으로 B는 성폭력 대책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조직하고 법을 바꾸기까지의 과정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변화를 이루었을 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이는 다양한 주체의 동료들이 함께 여성-되기를 실현함으로써 자신들의 생활세계를 바꾸어 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비판적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가부장적 교회 문화에서의 탈주를 시도하는 여성 목회자의 여성-되기 경험을 탐색하였다. 비판적 질적연구는 비판이론에 기반하는 방법론으로 비판이론은 사회나 집단의 불평등한 구조를 드러내며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변화를 지향하는 특징을 보인다(김영순 외, 2018: 31). 선행연구들은 한국의 기독교가 여성 목회자에게 불평등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지적하며(강남순, 1998; 강호숙, 2021; 김혜령, 2022; 박보경, 2008; 백은미, 2017; 이정숙, 2003) 본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선행연구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여성-되기 경험을 탐색한 결과, 홈 패인 공간에서의 어려움, 물적인 여성들을 마주함, 함께 여성-되기, 매끄러운 공간의 생성이라는 4가지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연구참여자들은 여성 목회자에 대한 불평등이 만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편견에 부딪히거나 미묘한 차별, 기회가 제한되는 일들을 통해 교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여성-되기의 필요를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여성-되기의 과정에서 함께 여성-되기를 실현하는 여성을 마주하거나 정반대로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는 물적인 여성을 마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홈 패인 공간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여성-되기를 통해 매끄러운 공간을 생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남성 중심의 교회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지도력이 제한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기독교에서 목사안수는 공식적인 지도력의 부여를 가리킨다(박경순, 2007: 75). 그러나 본 연구는 목사안수를 받은 이후에도 연구참여자들의 지도력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지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여성 목회자가 겪는 차별과 배제를 소개한 이전의 경험 연구(김윤희·송현, 2020; 박향숙, 2020; 서영준, 2017; 서영희, 2018; 오현주, 2018) 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여성의 목사안수를 불허하는 교단의 경우, 신학교에 진학한 여성이 기회의 제한을 경험하며 위축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조혜정·양성은, 2014: 290) 목사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에 소속된 연구참여자들의 사례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목사안수를 받은 여성들은 유리천장에 부딪힐 때 상대적인 좌절감을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좌절은 여성-되기로 나아가게끔 하는 동력이 되었다.

둘째, 남성 중심의 교회 문화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이 마주한 교회 여성 중 모두가 기존의 교회 문화에 대항하며 함께 여성-되기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 그중에는 가부장적인 교회 문화를 강화하는 물적 여성들도 있었다. 여성-되기를 실현하는 연구참여자들에게 그러한 물적 여성들은 반대자로 나타났고 연구참여자들은 당황스러움을 경험하였다. 이것은 남성 중심의 교회에서 여성의 지도력이 발휘되기 위해서 교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지지가 필요함(박경순, 2007: 85)을 입증해주는 결과다. 반대로 함께 여성-되기를 실현하는 여성 동료들을 만날 때 연구참여자들은 정서적인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의 여성-되기 과정에서 남성의 협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여성-되기는 모든 주체의 운동이며 남성 중심의 문화를 뒤바꾸는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다(연효숙, 2006: 95). 여기에는 물질적인 여성뿐 아니라 물질적인 남성의 여성-되기도 실행될 필요가 있다(김은주, 2019: 121).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과 함께 여성-되기를 실현하는 동료들은 대다수가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동료들의 협력은 간헐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장적인 교회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남성들의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김은혜, 2009; 박보경, 2016).

본 연구는 남성 중심의 교회 문화에 순응하지 않고 여성-되기를 실현하는 여성 목회자들의 경험을 탐색하였다. 비판의 쟁점을 가부장적인 교회 문화로 명시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반대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여성 목회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지적하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여성-되기를 통해 그러한 문화에 저항하는 여성 목회자의 주체적 측면을 드러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여성 목회자들은 좌절에 머무르지 않고 여성-되기를 통해 꾸준히 매끄러운 공간을 생성하고자 하였다. 한편으로 공간의 특성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의 방식이다. 현실에서 흠 패인 공간과 매끄러운 공간은 중첩과 혼합의 형태로 발견되기 때문이다(박건령, 2022: 1158). 다시 말해, 흠 패인 공간에서도 기존의 지배 구도에 균열을 내며 매끄러운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고 매끄러운 공간에서도 흠을 파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김정순, 2009: 84). 여성 목회자들의 여성-되기가 계속적인 진행형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아가 여성 목회자의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함께-되기 경험을 후속연구로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남순(1998).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강혜원·이정운(2020). “미묘한 성차별(Gender Microaggression)에 대한 개념도 연구: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106호. 63-92.
- 강호숙(2021). “젠더 정의(gender justice) 관점에서 본 교회 직제와 교회 정치에 대한 실천신학적 연구”. *신학과사회*. 제35집 제2호. 165-202.
- 강희수(2013). “한국 여성신학과 여성 목회현장의 만남”. *기독교사상*. 제651호. 34-45.
- 계재광(2010). “유교문화가 한국교회 리더십 형성에 미친 영향 - 유교의 권위주의 영향을 중심으로”. *신학과실천*. 제22호. 77-106.
- 권최연정(2017). “여성혐오와 교회 내 성범죄”. *종교문화연구*. 제29호. 25-48.
- 김나미(2016). “교회의 여성혐오를 다루지 않고서는 500주년 종교개혁을 논하지 말라”. *제3시대*. 제89호. 7-10.
- 김모란(2013). “양성평등적 목회를 위한 여성 지도력 연구”. *한국여성신학*. 제77호. 94-116.
- 김영순·김진희·강진숙·정경희·정소민·조진경·조현영·최승은·정지현·오세경·김창아·김민규·김기화·임한나(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서울: 창지사.
- 김영천(2013). *질적연구방법론2: Methods*.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천(2016). *질적연구방법론1: Bricoleur*.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김윤희·송현(2020). “중년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신학과사회*. 제34집 제40호. 277-300.
- 김은주(2014a). “들뢰즈와 가타리의 되기 개념과 여성주의적 의미: 새로운 신체 생산과 여성주의 정치”. *한국여성철학*. 제21권. 95-119.
- 김은주(2014b). “젠더 트러블을 넘어 되기로서의 젠더로-들뢰즈와 가타리의 되기 개념과 새로운 신체”. *시대와철학*. 제25권 제4호. 10-39.
- 김은주(2019). *여성-되기: 들뢰즈의 행동학과 페미니즘*. 경기: 에디투스.
- 김은혜(2009). “양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교회 여성운동”. *한국여성신학*. 제69호. 11-15.
- 김정순(2009). “제인의 여성-되기: 들뢰즈와 가타리로 읽은 제인 에어”. *근대영미소설*. 제16권 제3호. 81-105.
- 김재인(2015). “여성-생성, n개의 성 또는 생성의 정치학”. *철학사상*. 제56호. 215-37.

- 김진호·박재형·박지은·박진경·송진순·이은애·이주아·장영주·최순양·최유진
(2018). *혐오와 여성신학*. 서울: 동연.
- 김혜령(2022). “젠더 정의의 퇴행 공간으로서의 한국 교회—부산에서 칼스루헤까지”. *신학사상*. 제196집. 307-346.
- 김혜미·김영순(2022). “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질적메타분석”. *여성연구*. 제115호. 363-387.
- 나리타 마미·장은영(2020).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제13권 제4호. 75-101.
- 박건령(2022). “틀림의 사유를 통한 이론적 결정화: 어린이-되어가기와 교사/연구자-되어가기의 의미 재구성하기”. *문화와융합*. 제44권 제10호. 1153-1164.
- 박경순(2007). “리더십 측면에서 본 여성안수”. *신학과실천*. 제12호. 73-96.
- 박보경(2008). “여성목회 현장분석과 여성사역 전문화를 위한 과제”. *장신논단*. 제32권. 77-109.
- 박보경(2013). *여성·교회·하나님의 선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박보경(2016). “선교적 과제로서의 젠더 통합적 리더십 형성을 위한 방안”. *선교신학*. 제41집. 147-178.
- 박정신(2011). “우리 역사에 나타난 여성과 기독교의 이음새 그 맞물림과 엇물림의 사회사”. *여성과역사*. 제14호. 175-197.
- 박향숙(2020). “한국 기독교 여성 목회자의 배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제63권. 117-134.
- 박해선(2020). *자활참여 세대의 상호주관성과 미래전망에 대한 비판적 질적연구: Honneth의 사회적 인정관계의 구조를 중심으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은미(2017). “기독교 교육과정에 내재한 여성혐오 분석과 대안 모색”. *기독교교육논총*. 제51집. 41-73.
- 브라이도티, 로지(2004). *유목적 주체*. 박미선(역). 서울:여이연. (Braidotti, Rosi, *Nomadic subjects : embodiment and sexual difference in contemporary feminist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 송현진·조윤직(2014). “유리천장 지각의 효과-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행정*. 제24권 제2호. 27-49.
- 서영준(2017). “여전도사의 차별적 문화에 관한 제도적 문화기술지”. *장신논단*. 제49권 제1호. 359-385.

- 서영희(2018). *중년여성 목회자의 탈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엄수정(2019). “제도권 학교를 떠나 대안학교를 선택한 부모들: Deleuze와 Guattari의 유목주의 이론에 근거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6권 제1호. 181-210.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여성 폭력 통계.
- 연효숙(2006). “들뢰즈와 가타리의 유목주의와 욕망론 그리고 여성적 주체”. *한국여성철학*. 제6권. 77-102.
- 오주리(2021). “허영자 시의 ‘여성-되기(Becoming-Woman)’ -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생성의 존재론의 관점으로”. *비평문학*. 제80호. 57-91.
- 오현주(2018). *개척교회 기혼 중년여성 목회자의 심리사회적 경험*.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나영(2016).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문화와사회*. 제22호. 147-186.
- 이정민(2024). “이주노동자의 ‘지역주민-되기’ 과정과 배움의 의미”.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3권 제1호. 323-345.
- 이정숙(2003). “한국개신교 여교역자의 인권”. *아시아여성연구*. 제42호. 113-171.
- 장미혜(2021). “여성 폭력이란 무엇인가: 개념과 유형”. *이화젠더법학*. 제13권 3호. 65-103.
- 잭, 홀랜드(2021). *판도라의 딸들 여성 혐오의 역사: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편견*. 김하늘(역). 서울: 메디치 미디어. (Jack, Holland, *A Brief History of Misogyny: The World's Oldest Prejudice*, Massachusetts: Robinson Press, 2019).
- 정도희(2023). “여성 폭력 및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 개선 모색”. *원광법학*. 제39권 제1호. 263-286.
- 정숙자(1994).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 *신학사상*. 제87집. 131-136.
- 조승미·박혜훈·최혜영·임희숙·박미현·차옥승·조은수·이숙진·강혜경·유혜린 (2014). *한국 여성 종교인의 현실과 젠더 문제*. 서울: 동연.
- 조애리·김진옥(2016). “들뢰즈와 가타리의 여성-되기와 전복성”. *페미니즘연구*. 제16권 제1호. 265-284.
- 조혜정·양성은(2014). “여성의 신학대학원 진학과 진로결정에 대한 질적연구”. *기독교교육정보*. 제40집. 271-295.
- 최유미(2020).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서울: 도서출판 b.

- 최종호(2010). “여성들의 목회 참여를 위한 성격적-신학적 고찰: 여성 목사 안수 문제에 관하여”. *인문학논총*. 제15권 제1호. 175-193.
- 최현경·강진숙(2020). “20대의 미디어 여성 이미지 재현에 대한 인식과 ‘여성-되기’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34권 제2호. 140-176.
- 통계청(2021). 양성평등실태조사.
- 한정현(2016). “들뢰즈/가타리 관점에서 본 소수자 신학 연구”. *신학사상*. 제175집. 281-313.
- 해러웨이, 도나(2019). *트러블과 함께 하기: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 최유미(역). 서울: 마농지.(Haraway, Donna, *Staying with the Trouble*, North Carolina: Duke University Press, 2016).
- Ceasar, C. L. (2020). *Lived Experiences: Phenomenological Exploration of African American Women Seeking Pastoral Positions*. Doctoral Dissertation of Grand Canyon University.
- Deleuze, G., & Guattari, F. (1987). *A Thousand Plateaus*. Trans. Brian Massumi. Minneapolis and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Abstract

A Critical Qualitative Study on the 'Becoming-Women' Experience of Female Pastor

Hyemi Kim*·Youngsoon Kim**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Becoming Woman' among female pastors who refuse to conform to patriarchal church culture through critical qualitative research. Critical qualitative research is qualitative research based on critical theory and is interested in finding solutions by revealing unequal social structures or relationships. Three research participants were selected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s a result of content analysis, four categories and twelve meanings were derived. The four categories are difficulties in striated space, facing molecular women, Becoming-Women with, and creating smooth space.

The discussion presented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First, female pastors still experience difficulties with limited leadership in the male-dominated church after their ordinations, and it led them into Becoming-Women. Second, church women's responses to male-centered church culture were different. In the process of Becoming-woman, research participants encountered female colleagues as both opponents and supporters. Third, men's cooperation to change the church's patriarchal culture appeared to be minimal.

Keywords : Female Pastor, Deleuze & Guattari, Becoming-Women, Critical Qualitative Study

* First Author: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